



## 세기 전환기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방향상실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를 중심으로

---

저자 (Authors)	사지원
출처 (Source)	<a href="#">카프카연구 8</a> , 2000.12, 123-142 (20 pages) <a href="#">Franz Kafka 8</a> , 2000.12, 123-142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카프카학회</a> Koreanische Kafka Gesellschaft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48462">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48462</a>
APA Style	사지원 (2000). 세기 전환기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방향상실. 카프카연구, 8, 123-142.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3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세기 전환기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방향상실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를 중심으로 -

사 순 옥\*

## <제 목>

1. 들어가는 말
2. 1900년대 사회의 가치관 혼돈과 새로운 가치관 정립의 시도
3. 소설에 나타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 3.1 소시민적인 가치관
  - 3.2 국가와 교회의 역할
  - 3.3 교육의 역할
4. 한스 기벤라트의 발전과정
  - 4.1 소년기의 상실
  - 4.2 마일부른 신학교와 하일너와의 우정
  - 4.3 우정의 파괴와 좌절
  - 4.4 신학교에서의 실패와 죽음
5. 맺는말

## 1. 들어가는 말

1900년이 시작되었던 시대나 일 백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세기 전환기에는<sup>1)</sup> 부조화와 무질서와 새 시대에 대

---

\* 건국대학교 강사

한 두려움 등의 분위기가 감돈다. 다만 그 시간대의 간격만큼 위기의식이나 분위기의 종류는 달라졌다. 1900년대의 사회는 대중사회로의 발전을 의미하는 고도의 산업화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과 인구의 도시집중화 및 관료화 등으로 큰 변혁이 일어났었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은 정보화시대로 전자매체가 인간을 지배하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며 상품의 가능성이 있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인공이 자연을 능가하고 진실의 실체는 뒷전으로 밀린 채 무엇이 더 탐닉할만한, 진짜보다 월등한 가짜인가에 사람들의 흥미가 쏠리고 있다. 그 사회 속의 청소년들 역시 신념을 갖지 못하고 흔들린다. 20세기 초의 사회상황과 지금의 사회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갈등의 종류와 그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그들을 기본적으로 짓누르는 학교 교육은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헤르만 헤세 Hermann Hesse의 작품 『수레바퀴 아래에서 Unterm Rad』(1906)가 문제삼고 있는 교육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바퀴’란 돌기 위해서 또는 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견인력이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이미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중압감과 강요를 연상시킨다. 소설은 교육이라는 ‘수레바퀴’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내면의 혼돈과 고통과 외적인 변화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에 나타난 세기 전환기의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자아를 정립해야 하는 청소년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조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또한 소설이 발표되고 한 세기가 지나가고 또다시 세기 전환기에 있는 지금, 무너지는 교실과 붕괴하는 학교 교육을 논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데에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 1) 세기 전환기란 역사적으로 1900년을, 또 2000년을 전후한 20여 년 간의 시대공간을 의미한다.

## 2. 1900년대 사회의 가치관 혼돈과 새로운 가치관 정립의 시도

세기 전환기의 사회적 현상은 가치관의 혼돈과 방향 상실 및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추구를 들 수 있다. 더구나 산업혁명 이후 1900년대의 서구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도의 산업자본주의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물질주의와 과학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하지만 독일의 정치적 상황은 이에 발맞추어 발전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통치하는 독일제국의 헌법체제는 여전히 군주권이 우월한 굳건한 군주제여서 의회는 거의 실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sup>2)</sup> 따라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절대주의 국가의 권력이 근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sup>3)</sup> “이 국가를 지탱하는 주된 힘은 국내외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군대였다”.<sup>4)</sup>

반면에 교통과 대중매체와 교육기회의 팽창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말에 독일인의 (...) 약 3/5이 신문을 구독했고, 1840년과 1912년 사이에 우편물량이 1인당 60배로 증가하였다. (...), 이는 국민의 통신 범위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sup>5)</sup>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팽창되면서 소통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제국에서는 중산층으로까지 파고들었고”,<sup>6)</sup> 그로 인하여 당대 공동체의 규범과 정치를 결정했었던 소수의 지식층, 특히 귀족과 법률가, 목사, 의사, 공장주와 같은 비귀족 및 관리직에 있는 학자층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독점력을 잃었다.<sup>7)</sup> “고도의 산업화로 치닫는 강요 속에서 독일제국

2) Vgl. Wehler: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8, Göttingen 1973, S. 62.

3) Ebd.

4) Vgl. ebd., S. 159.

5) Rauh: Epoche-sozialgeschichtlicher Abriß, S.27. In: H.A. Glaser (Hrsg.): Deutsche Literatur. Eine Sozialgeschichte, Bd. 8. Jahrhundertwende: Vom Naturalismus zum Expressionismus 1880-1918, Reinbek bei Hamburg 1982.

6) Ebd., S. 30

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즉 교양있는 구 시민 계층의 엘리트들은 복수주의적인 대중사회의 형태 속으로 흡수되었고, (...) 기술화와 관료화로 인하여 인문학자(신학, 법학, 어문학)들의 역할은 자연과학, 기술,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대체되었다.”<sup>8)</sup> 다시 말하면 지식층들이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갔다. 또한 정신사적으로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고 종교와 자연주의적 객관성과 휴머니즘조차 의문시되었다. 그 당시 광목할만한 문화비평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모든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며 무엇보다 기독교를 공격하였다. 그는 창조적인 개인은 사회와 국가와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연주의의 객관성으로부터 전환하여 새로운 개인주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sup>9)</sup>

세기 전환기의 문학에서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하나의 주제는 언어 상실감이다. 관습적인 언어체계로는 더 이상 내면의 체험과 총체적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후고 폰 호프만스탈이 내세운 가상인물 산토스 경은 친구 프란시스 베이컨에게 쓴 편지(『산토스 경의 편지 Der Brief des Lord Chandos』1902)에서 “나에게는 (...) 온 현존재가 하나의 커다란 통일체로 나타난다”<sup>10)</sup>고 적고 있다. 즉 산토스 경은 정신적인 세계와 육체적인 세계가 어떠한 대립도 형성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종교적이고 현세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개인의 어려운 상황과 어떤 것과 관련시켜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호소한다.<sup>11)</sup> 뿐만 아니라 그는 “추상적인 말”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한다.<sup>12)</sup> 그는 현실이 더 이상 개념으로 파악될 수 없는 부분으로 부수어져 버리고 고대의 정신세계에서도 일체감을 찾을 수 없어서 고독하다고 적고

7) Vgl. ebd.

8) Ebd., S. 30f.

9) Vgl. Ruprecht/ Bänsch(Hrsg.): Jahrhundertwende.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90-1910, Stuttgart 1981, S. XIX.

10) Hofmannsthal: Ein Brief. In: Gesammelte Werke in Einzelausgaben. Prosa II, Hrsg. v. H. Steiner, Frankfurt a. M. 1951, S. 10.

11) Vgl. ebd., S. 10f.

12) Ebd., S. 12.

있다.<sup>13)</sup> 또한 일정한 상황과 대상들이 그의 내면에서 일으키는 느낌들을 표현할 수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무한함이라는 것도 체험하지만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으며 공허하다고 느낀다.<sup>14)</sup> 요컨대 호프만스탈이 「산토스 경의 편지」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언어의 위기나 언어에 대한 회의는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1906년에 발간된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에서』에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작품 전체에 깔려 있으며,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은 그 사회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좌절해 간다. 요컨대 소설에는 자아일체감의 상실, 붕괴된 가치체계로 인한 불안감, 근대인의 내적 분열과 그로부터 초래된 감정이나 경험 등을 표현할 수 없는 무능력 등이 나타나 있다.

방향상실감이나 새로운 방향설정에 대한 의지는 과도기 사회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애나 성장해 가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이기도 하다. 발터 슈리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향설정이란 근본적으로 규범체계를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슈리안은 청소년기에 방향을 상실하는 원인이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자기 자신에게도 있지만 그들이 아직 확고한 가치기준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긴다.<sup>16)</sup>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의 주변집단으로서 위태로운 상황 *exponierte Situation*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규범체계의 모순적인 구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한다.<sup>17)</sup> 슈리안은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암시한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

13) Vgl. ebd., S. 13.

14) Vgl. ebd., S. 16f.

15) Schurian: Psychologie des Jugendalters. Eine Einführung, Opladen 1989, S. 148.

16) Vgl. ebd. S. 161.

17) Ebd.

은 교육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교육기관이나 제도가 요구한 것들이 청소년들의 욕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향의 상실이란 서로 영향을 끼치며 얽혀 있는 다양한 규범과 가치들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슈리안은 덧붙여 설명한다.<sup>18)</sup> 또한 그는 “공격성도 방향상실의 결과”라고 말하며 이를 “방향을 상실한 공격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9)</sup> 또 “자살이란 공격성이 철저히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 형태”<sup>20)</sup>이며 사회적 방향상실의 결과로써 “자신에 대한 의식적인 파괴의 행위”이다라고 설명한다.<sup>21)</sup>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한 사회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며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 3. 소설에 나타난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 3.1 소시민적인 가치관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첫 장면에는 주인공 한스의 아버지 요제프 기벤라트의 소시민성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그는 슈바르츠 발트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서 장사수완 덕분에 정원이 딸린 자그마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상대대의 묘소가 있는 선산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돈을 숭배하고 신과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으며 시민적인 미풍양속에 맹종한다. 당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내면화하였으며 별 특성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불완전한 교육수준은 아들에게 “사전 den Lexikon (das Lexikon)을 잊지 않았는지”<sup>22)</sup>를 물을 때에 나타난다. 다른 가정의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뛰어난 능력이나 인격에 대한 불신과 비밀상적인 것이나 비전

18) Vgl. ebd., S. 164.

19) Ebd. S. 169.

20) Ebd. S. 179.

21) Ebd.

22) Hesse: Unterm Rad, Frankfurt a. M. 1972. S. 17. 이하 작품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시한다.

통적인 것에 대한 본능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의 최고의 이상은 아들에게 대학공부를 시켜 관리로 만드는 것이다. 즉 아들은 그에게 “신분 상승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sup>23)</sup> 요컨대 요제프 기벤라트는 평균적인 소시민으로서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내적인 삶은 고루한 이의 삶 그 자체이며 물질주의, 종교의 의무, 세상의 권위, 소시민적 도덕성 등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나 요제프 기벤라트의 아들 한스의 수준은 이 소시민의 세계를 뛰어 넘는다. 그는 특별했으며 귀티가 나고 천부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다. 순탄하게 기반을 다져온 소시민의 집안에 노동력을 상징하는 신체는 연약한 반면에 빛나는 눈과 천재성을 지닌 소년이 출현했다는 것은 “지력이 비대함으로써 쇠퇴가 시작되는 징조”를 나타내는, 즉 전통적인 시민적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하는 세기 전환기에 나타난 데카당스적 이념<sup>24)</sup>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한스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한 일가의 붕괴를 담고 있는 토마스 만의 소설에 등장하는 한노 부텐부르크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는 매우 창백했다. 그의 무릎에는 힘이 없었고 그의 눈은 빛났다.<sup>25)</sup>

또한 소설에는 세기 전환기의 문학적 특성인 문체의 혼합현상도 보이는데,<sup>26)</sup> 한스에 대한 묘사는 데카당스적이지만 첫 부분에 묘사된 도시와 그 정서

23) Karst: Kindheit, Jugend, Schule - Zum Beispiel Hermann Hesses "Unterm Rad". In: Haas (Hrsg.): Literatur im Unterricht, Stuttgart 1982, S. 36.

24) 데카당스란 19 세기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퍼진 사회의 몰락이나 쇠퇴과정에서 나타나는 퇴폐적인 경향을 말하며, 데카당스 문학은 흔히 조화나 화합보다는 고통과 분열, 우울과 상실감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문학을 말한다. Vgl. G. v.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 Stuttgart 1969, S. 154.

25) Mann: Buddenbrooks. Verfall einer Familie, Frankfurt a. M. 1974, S. 750.



를 나타내는 장면들은 사실주의적이다.

### 3.2 국가와 교회의 역할

소설에 나타난 국가의 기능은 주(州) 시험을 합격한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덧붙여 설명하면 신학교 학생들은 관비로 생활하고 공부하며 정부는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청년이 되도록 애쓴다. 그리고 철저한 교육 덕분에 그들은 사회에서도 그 정신과 태도로 무장되어 생활한다. 부모들 역시 그러한 아들에 대한 자부심만을 지니고 있을 뿐 “아이들을 금전의 이익과 바꾸어 나라에 팔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64),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곳곳이 버터내어 평생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고 안정된 직업을 얻도록 부추긴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후 목사나 교사 또는 관리가 됨으로써 국가가 베푼 자선을 평생동안 갚아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이라는 개념은 반어적이다. 더구나 한스 기벤라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진보적인 목사는 한스가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명예욕을 조장할 뿐이며, 교회는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고 안정을 찾아 주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교권적인 기관이다. 이 목사와 거리를 두고 있는 소심한 경건주의자 구두장이 프라이크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오히려 한스를 염려하는 - 결국 아무 효과가 없지만 - 유일한 인물이다. 그는 한스에게 그 나이에는 폐쇄된 공간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공부만 하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마음껏 숨쉬고 움직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이 사람만이 소설의 결말에 일어나는 한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다. 결국 교회와 국가기관은 가치 절하되어 있으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이들의 앞날에 길잡이가 되어주지는커녕 그들의 미래

- 
- 26) 빅토르 츠메가치는 「세기 전환기의 문학사적 개념」에 대한 글에서 세기 전환기에는 새로운 미학적 방법의 시도로 여러 사조, 즉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주의, 인상주의, 신낭만주의, 데카당스가 서로 복합되어 나타났으며 한 작품에 여러 문체가 서로 얹혀 있기도 한다고 말한다. Vgl. Zmegac: Zum literarhistorischen Begriff der Jahrhundertwende (um 1900). In: Ders: Deutsche Literatur der Jahrhundertwende. Königstein i.Ts. 1981. S. Xlf.

를 폐쇄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 3.3 교육의 역할

한스의 목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문주의적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선생님이나 목사가 되는 것인데, 이는 그의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자이며 교육 개혁가인 게오르그 케르센슈타이너에 의하면 1900년대의 사회가 청소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할 것은 직업능력과 노동에 대한 기쁨을 키워주고 성실성과 근면 및 자기극복과 활동적인 삶에 전념할 수 있는 덕망을 육성시키는 일이며 조국과 사회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신체적 건강의 중요함에 대해 가르치고 봉사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실행시키는 일이다.<sup>27)</sup> 또한 한스 올리히 벨러는 권위적 사회에서 “교육이란 여러 연령층에 있는 개개인의 사회적 태도를 다양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이며, “개개인은 앞으로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고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합당한 궤도로 이끄는 규범들을 내면화해야 한다”<sup>28)</sup>고 말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의 발달과 지적, 정서적, 사회적 등 여러 발달영역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촉진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육이다. 소설은 한스가 교육을 얼마나 자신의 삶의 기둥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한스는 권위주의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벨레가 쓰고 있는 교육의 목표나 케르센슈타이너가 말하는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당대의 가치관을 지배했던 교회와 국가와 교육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청소년들을 이끌지

27) Vgl. Kerschensteiner: Wie ist unsere männliche Jugend von der Entlassung aus der Volksschule bis zum Eintritt in den Heeresdienst am zweckmäßigsten für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zu erziehen? Gekrönte Preisarbeit. In: A. Kunze (Hrsg.): Die Arbeiterjugend und die Entstehung der berufsschulischen Arbeiterausbildung. Sechs Schriften. 1890-1938, Liechtenstein 1987, S. 16.

28) Wehler: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8, Göttingen 1973, S. 122f.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고 있는 교장은 학생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 바퀴 아래에 깔리지 말라고 경고하며,<sup>29)</sup>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성심과 맹종을 주입시킨다.

그[교사]의 의무와 국가가 그에게 맡겨준 직무는 어린 소년들의 난폭한 힘과 자연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 대신 국가에 의해 인정된 차분하고 균형 잡힌 이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50)

따라서 교사는 학급에 한 명의 천재보다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저항심 없는 “10명의 얼간이를 두고 싶어한다”. 결국 “학교의 사명은 당국에서 시인한 원칙에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인간을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바꾸고 결국에는 군대식의 빈틈없는 훈련에 의해서 훌륭하게 최후의 완결을 맺어 여러 가지 성질을 그에게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다.” (50)

이처럼 헤세는 곳곳에서 제국주의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다. 한스 기벤라트와 마찬가지로 마일부론 신학교의 환경에 억눌렸던 헤세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개개인의 개성을 획일화시켜 버리는 제국주의의 교육이념이다.<sup>30)</sup>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개성이 가장 순수하게 펼쳐질 때에 자아에 가장 접근하게 된다”<sup>31)</sup>고 믿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개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을 일깨워주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이 되도록 그들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체계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체계를 스스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아를 발견함이며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한스도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그의 정신적인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자.

29) “지쳐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퀴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

30) Vgl. Hesse über *Unterm Rad*. In: Pfeifer: Erläuterungen zu Hermann Hesses *Peter Camenzind*, *Unterm Rad*, *Knulp*. Hollfeld 1982, S. 67.

31) Böttcher: Studien über Hermann Hesse. In: Hermann Hesse, Schriftsteller der Gegenwart, Berlin 1956, S. 17

## 4. 한스 기벤라트의 발전과정

### 4.1 소년기의 상실

슈바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한스는 그의 친구들과는 달리 천재성을 지닌 아이로 라틴어 학교에서 언제나 1등을 한다. 그래서 선생님과 아버지는 한스의 진로를 이미 결정해 놓고 있다. 즉 주지방의 시험을 거쳐서 신학교를 마친 다음 튜빙엔의 수도원으로,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되거나 대학의 강단으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한스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고 한스 자신도 전혀 갈등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게다가 선생님은 그에게 이 도시에서 주시험을 치르러갈 유일한 후보자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그의 명예욕과 우월감을 더욱 부추긴다. 따라서 한스는 자기보다 못한 동급생들을 은근히 업신여기고 일상에 만족해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을 지니고 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한스의 생활은 출세가 보장된 주시험을 위한 공부에 바쳐지고 천진스러워야 할 어린 시절은 자연스럽게 희생되고 만다. 그는 각 지방에서 모인 인재들과 겨루기 위해서 매일 오후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 교장선생님 댁에서 그리스어의 보충수업을 듣고 6시에는 다시 목사에게로 가서 라틴어와 종교과목을 복습한다. 그가 가장 즐겼던 낚시질이나 토끼에게 통나무집을 지어주던 일 또는 물레바퀴를 만들 때의 즐거웠던 시간들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스의 생활은 오로지 주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짜여져 있고 이러한 생활의 지속은 그를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지치게 하며, 오히려 이 편협한 교육이 그의 인격의 발전을 저해한다. 하지만 그의 주변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한스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사춘기에 접어들었으며 자연을 좋아하는 이 소년의 마음을 읽고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주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피로에 지친 소년은 소리내어 통곡하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히지만, 그 대신에 도끼를 들고 나와 바깥 여윈 팔을 쳐들어 토끼집을 산산조각 낸다. “마치 그것으로 (...) 모든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처럼”(16) 부수어 버린다. 이 장면은 한스가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 외에도 소설은 일찍 어머니를 잃고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스가 동심의 세계를 잃었음을 곳곳에서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시험이 끝난 후에 다소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2등으로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선 그 동안의 상실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단지 1등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애석해 하며 다시功名심과 경쟁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신학교에서 필요한 공부에 몰두한다.

#### 4.2 마일부른 신학교와 하일너와의 우정

신학교의 입학 이후 한스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학업에 몰두하여 부지런한 “모범생”으로 통하게 된다. 한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학교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면서 가능한 한 1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처음에는 별무리 없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늘 혼자만 지냈던 한스는 친구를 사귀는데 서툴다. 따라서 신학교 내에서도 그는 늘 혼자이고 급우가 접근해오면 미리 겁을 먹고 도망을 치곤 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한스는 애정이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것을 두려워한다. 오로지 소년다운 자부심과功名심에 빠져있는 그의 목표는 지식을 쌓는 것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한다. 그러나 곧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격적 결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온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강한 개성을 가진 헤르만 하일너와의 만남이다.

하일너는 슈바르츠 발트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활기가 넘치며 입학한 첫 날부터 뛰어난 말솜씨와 작문실력 등 지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앞날을 모색하고 있는 아이로 그에게는 “추상적인 것,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가 상상으로 그려낼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80) 또한 그는 획일화되고 강압적인 제도에 강하게 반항한다.

한스는 하일너를 사귀면서 자기가 여태껏 알고 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

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이상과 목표에 의문을 갖게 된다. 더구나 하일너가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자, 그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히고 만다.

너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네 아버지가 두려워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네가 1등이나 2등이 되면 뭘 하니? 나는 20등이지만 너희들 노력하는 자들보다 머리가 나쁘지 않아. (80f.)

한스의 편협한 정신세계는 이러한 논리에 아직 눈뜨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가 학업에 전념하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그는 점점 더 혼돈으로 빠져들어 갔다. 따라서 하일너는 한스에게 “한편으로는 금지를 지닌 보물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부담이었다.”(80) 또한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조숙한 아이와의 우정이 자신을 “지치게 하고 지금까지 전드리지 않았던 본성의 순수한 부분을 병들게 한다”(82)는 것을 감지하면서 다시 “옛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자유분방하고 다혈질적인 하일너가 급우에게 폭력을 가하고 외출을 금지 당하자, 한스는 하일너의 편에 서주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만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선생님의 질책을 감당하면서까지 친구를 보호해 줄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한스는 “우정의 의무와 공명심과의 싸움에서 실패”(85)하고, 그의 내면에선 명예욕이 되살아난다.

하지만 한스는 한 급우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이기심이나 공명심 같은 것은 허무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 진지하고 나이 들어 보인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한 급우의 죽음을 보고 친구와의 우정을 파괴한 데 대한 죄책감으로 한스는 대단한 혼돈 속에서 방황하면서 “사람들이 결코 잊을 수 없고 어떤 후회로도 보상될 수 없는 죄와 태만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에게는 “앞에 높이 치켜든 들 것 위에 조그만 양복점의 아들이 아니라 친구 하일너가 누워있으며, 성적, 시험, 성공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깨끗함과 그렇지 않음만을 표준으로 삼는 다른 세계로 그의 배신에 대한 고통과 노여움을 싣고 가는 것같이 생각되었다.”(92) 난처하고 외로운 처지에 처한 친구를 배반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

른 것이다. 이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스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하일너에게 용서를 빈다. 즉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공명심이 우정에게 자리를 내준 것이다.

“네 주위를 계속 맴도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꼴찌가 될 거야.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친구야.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96)

인격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한스는 우정과 공명심을 동시에 실현시킬 능력을 지니지 못했으며 우정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몰아낸다. 그는 이제 학교공부 대신에 완전히 하일너에게 빠져들며 그의 내면의 규범은 하일너와의 우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럼으로써 한스는 학교생활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환상에 빠져들며, 심지어는 알 수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지금까지 자아를 실현시키고 지탱해 줄만한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한스는 그의 인격의 발전에 있어서 감정이나 환상의 세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이제 그는 학교생활을 회생함으로써 이를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하일너는 친구의 심적 변화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애인에 대한 이야기로 한스를 더욱 혼란시킨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혼돈스럽기는 하지만 한스는 사랑이라는 감정에도 눈떠가게 된다.

#### 4.3 우정의 파괴와 좌절

하일너가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자, 한스는 완전히 고립된다. 공명심에서 우정으로 목표를 바꾸었던 그의 방향이 다시 길을 잃은 것이다. 그는 신경성 두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면 하일너를 생각하고 하염없이 꿈을 꾸며 몇 시간 동안이고 환상에 취해 있곤 한다.

5장의 첫 부분에서 전지자적 화자는 한스의 좌절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며 소년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본다.

아마 동정심을 가진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이 야원 소년의 얼굴에 깃들어 있는 힘없는 미소 뒤에서 꺼져 가는 영혼에 시달린 소년이 물에 빠진 듯이 불안과 절망에 절여 주위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학교와 아버지의 잔인할 정도의 명예욕과 몇몇 선생님이 이 연약한 소년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왜 그는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소년기에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는가. 왜 그에게서 토끼를 빼앗아버렸는가. 왜 라틴어 학교에서 그를 친구로부터 억지로 떼어놓았는가. 또 그에게 낙시질과 산책을 금했고 보잘것없고 자극적인 명예욕의 공허하고 속된 이상을 주입시켰는가? 왜 사람들은 주시협이 끝나고 난 후에 그가 마땅히 얻어낸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는가? (117f.)

수업 도중에 일어나는 발작과 공포는 한스의 심리적 및 신체적 파괴를 의미한다. 그에 대한 원인은 오로지 모범생을 목표로 두었던 한스에게 인간 사회의 다른 가치들이 개입됨으로써 혼돈을 일으키고 방향을 상실함에 있다. 신학교는 자아를 발견하고 자의식을 키우려고 하며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항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들에게는 적합지 않다. 따라서 목사나 교사를 목표로 한다면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제도권 안에 남아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울타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이 획일적인 교육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소년을 치료해줄 약이 없기 때문이다.

#### 4.4 신학교에서의 실패와 죽음

한스는 약 일 년 간의 신학교 생활을 마감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나, 그의 심리 상태는 좋아지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하일너와 급우의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꿈으로 시달린다. 또한 “아름답고도 여원” 미지의 남자에 대한 꿈은 신학교에서 경험한 장면들, 즉 그리스어의 문법시간이나 교장선생님의 목소리로 곧 교체되어 버린다. 그만큼 그가 겪은 강박감의 고통이 컸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인격의 발전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것이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앞서지 못함을



암시한다. 그는 감성은 무시하고 이성에만 치우친 교육으로 인하여 마울부른의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우정, 사랑, 죽음, 초월성과 같은 중요한 체험들을 하지 못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체험들은 지금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한스는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외로움에 빠져 있다. 삶에 대한 의욕과 목표를 잃어버린 소년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부재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만한 곳을 찾지 못한 채 죽음에 대한 생각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 된다.

한스는 엠마를 만남으로써 사랑에 눈뜨고 삶에 대한 의욕을 찾은 듯 하나 그녀가 말없이 떠난 이후 곧 다시 좌절하게 된다. “의욕이란 그의 뜻뜻한 사랑의 힘의 승리와 폭력적인 삶에 대한 최초의 예감을 의미하며, 고통이란 아침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과 그의 영혼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유년의 세계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144) 따라서 한스는 더욱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워 한다.

기계 견습공으로 일하게 되면서 한스는 육체의 힘에만 의존하고 잡념을 없앨 수 있는 단순한 노동의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단순한 일상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는 주변의 동료들을 예전처럼 멸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의욕과 새 가치관을 찾는 듯하다. 그러나 이 변화 역시 자신의 통찰력에 의한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아버지가 권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떤 부담이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다.<sup>32)</sup> 진정한 자아극복과 정체성의 발견이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그가 술에 취하게 되자, 극복하지 못한 채 단지 억눌려 있던 불안감과 자아 비하감과 그리움 등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치솟아 올라온다. 그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하고 만취상태에서 익사하고 만다. 그의 죽음은 삶의 목표를 찾으려는 부단한 발버둥 끝에 나타난 것으로 결국은 자신과의 투쟁에서 패한 것이다. 이는 한스가 우수한 모범생 시절이나 친구와의 우정이나 기계견습공의 가치관 중 어느 하나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지 못한 결과이다.

성숙하지 못한 채 일찍 죽는다는 것은 데카당스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32) Vgl. Karst: a.a.O., S. 38.

한스 기벤라트는 토마스 만의 소설 『부덴부르크 일가』의 주인공 한노 부덴부르크와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구습적인 가정의 출신이라는 점과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유사하다. 이런 여러 면에서 볼 때 한 개인의 인생에서 인격의 발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끝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관 즉 시민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전향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이다.

## 5. 맺는 말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발전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발전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정신적인 축이 되는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 가치관에 의존하여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방향을 상실함이란 어느 시대에도 나타나는 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방향의 상실은 오히려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변혁이란 모순적인 규범과 가치들을 깨달음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이러한 불안한 체험들을 특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즉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한 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사회 자체가 어떤 완성된 가치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혁의 시기인 20세기의 전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종교관이나 시민적인 가치관의 변화도 나타났다.

헤세의 작품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특히 시민적인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사회는 세기 전환기의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미 다른 가치체제로 들어서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길잡이가 되어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 국가와 교회는 소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기 전환기의 사회는 성장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될 규범 체계를 스스로 세워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스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정립하지 못한 채 자기상실감 속에서 버둥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혼돈을 극복할 강한 의지도 자기만의 세계를 주장할 굳은 신념도 갖지 못한 한스는 죽음을 통해서만 『수레바퀴 아래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스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가치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기 전환기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려는 시도에 상응하는 일이며, 방향상실로 인하여 자기상실감에 빠진 한스의 반응은 세기 전환기의 정신적인 분위기, 즉 가치관의 혼돈과 정체성의 위기와 데카당스적인 정서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당시 유럽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스와 마찬가지로 작가 헤세도 어떤 완전한 가치체계와 새로운 방향설정에 대한 모색 없이 구습적인 가치관만을 강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았다.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문학적 자질을 지녔으며 폐쇄적인 공간보다 자연을 좋아하는 하일너와 천재적이고 낚시를 좋아하는 한스, 두 사람 다 헤세의 분신이다. 헤세도 이 두 아이처럼 마울부론의 신학교에 입학하였다가 7개월만에 억압하고 강요하는 '수레바퀴' 같은 학교를 이탈하였고 한스처럼 시계공장의 견습공과 서점의 견습생 시절을 보냈으며 신경성 질환에 시달렸었다.<sup>33)</sup> "학교가 나를 많이 망가뜨렸"으며 "그곳에서 라틴어와 속임수만을 배웠다"<sup>34)</sup>고 헤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순탄치 않은 시기들을 극복해 낸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양분을 주지 못한 사회와 교육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지금-이곳의 교육현장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 역시 오로지 지식전달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면서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갈망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벌이 중요시되는 사회이기에 청소년들은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이 교육을 견디어 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회에서 낙오되었다는 죄책감과 소외감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 학교를 뛰쳐나온 학생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을 만한 시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거리를 방황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신성한 교실의 의미는 사라져가고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인간의 체온이 없는 오락기나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벗으로

33) Hesse: Eine Literaturgeschichte in Rezensionen und Aufsätzen, Frankfurt a. M. 1970, S. 612.

34) Hesse: Brief an Karl Isenberg vom 25. 11. 1904, zit. nach Pfeifer: a.a.O., S. 67.

삼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대화를 모르며 활자를 잊어 가고 영상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위성화면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전수 받는다. 이런 곳에선 교육이 비틀거리기 마련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공간 내에서 숨결을 느끼며 서로 눈길을 주고받고 교감을 형성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이 부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사회성이 생겨날 수가 없으며, 인간에 대한 예의나 배려와 같은 따뜻한 마음과 열린 사고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과 발달은 전 생애에 걸친 인격 또는 인간성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가정은 이들에게 가치관의 정립 또는 도덕성 함양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할 것이고, 각 청소년단체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확실한 바탕이 뒷받침되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몫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차 문헌

- Hesse, Hermann: Unterm Rad, Frankfurt a. M. 1972.  
 Ders: Eine Literaturgeschichte in Rezensionen und Aufsätzen,  
 Hrsg. v. Volker Michels, Frankfurt a. M., 1970.

### 2차 문헌

- Böttcher, Kurt: Studien über Hermann Hesse. In: Hermann Hesse. Hilfsmaterial für den Literaturunterricht, Berlin 1956.  
 Hofmannsthal, Hugo v. : Ein Brief. In : Ders.: Gesammelte Werke, Prosa II, Hrsg. v. H. Steiner, Frankfurt a. M. 1951.  
 Kerschensteiner, Georg: Wie ist unsere männliche Jugend von der Entlassung aus der Volksschule bis zum Eintritt in den Heeresdienst am zweckmäßigsten für die bürgerliche

- Gesellschaft zu erziehen? Gekrönte Preisarbeit. In: Andreas Kunze (Hrsg.): Die Arbeiterjugend und die Entstehung der berufsschulischen Arbeiterausbildung. Sechs Schriften. 1890-1938, Liechtenstein 1987.
- Karst, Theodor: Kindheit, Jüngen, Schule - am Beispiel Hermann Hesses Unterm Rad. In: Gerhard Haas (Hrsg.): Literatur im Unterricht, Stuttgart 1982.
- Schurian, Walter: Psychologie des Jugendalters. Eine Einführung. Opladen 1989.
- Wehler, Hans U.: Das Deutsche Kaiserreich 1871-1918, Göttingen 1973.
- Mann, Thomas: Buddenbrooks. Verfall einer Familie. Frankfurt a. M. 1974.
- Pfeifer, Martin: Erläuterungen zu Hermann Hesses *Peter Camenzind*, *Unterm Rad*, *Knulp*, Hollfeld 1982.
- Rauh, Manfred: Epoche-sozialgeschichtlicher Abriß. In: H.A Glaser (Hrsg.): Deutsche Literatur. Eine Sozialgeschichte, Bd. 8. Jahrhundertwende: Vom Naturalismus zum Expressionismus 1880-1918, Hrsg. v. Frank Trommler, Reinbek bei Hamburg 1982.
- Ruprecht, E./Baesh, D. (Hrsg.): Jahrhundertwende. Manifeste und Dokumente zur deutschen Literatur 1890-1910, Stuttgart 1981.
- Zmegac, Viktor (Hrsg.): Deutsche Literatur der Jahrhundertwende. König i. Ts. 1981.